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열 번째 나눔지 20230430

[4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경배 찬양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선교

[김영진 선교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 리소스

1. 벨엘 하우스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교육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2. 소, 송아지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3. 우물, 병아리 나눔, 기술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4. 세 나라에 사는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

## 2023 오렌지 투어



# 우.목.소

###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 목장 사진 컨테스트 안내

1.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상의하여, 재미 / 의미 / 감동 / 참신함 등등이 담긴 사진을 찍을 계획을 합니다.
2. 계획에 따라 사진을 찍고, 간단한 목장 소개와 사진의 의도, 의미 등을 준비합니다. 사진 제출은 매 주 목요일 낮 12에 마감합니다. 5월 첫주는 우.목소. 회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첫번째 사진 마감은 5월 11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3. 목자는 준비된 사진과 내용들을, 마을장에게 전달하고, 마을장은 김성연 목사와 각 지역장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ex) 더은혜지역 10-5 목장 사진과 내용을 목자이신 최혁종 집사님이 마을장이신 조성봉 집사님께 전달해주시고, 조성봉 집사님께서 김성연 목사와 지역장이신 김종설 장로에게 함께 전달해주세요.
4. 전달된 사진과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성도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에 규알코드로 안내됩니다.
5.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목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외식 상품권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6. 5월 한 달간 매 주 진행이 되며, 첫번째 시상은 5월 14일 주일이고, 마지막 시상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민수기 20장 21절)

**[장애물]** \* 표준대국어사전

1.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
2. [군사] 전투를 지연시키거나 구속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지형지물.  
 => 강, 하천, 호수, 험한 산, 깊은 골짜기, 습지대, 철조망, 인공 낙석, 건물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 표현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돌부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돌부리를 넘었나보다'고 안도하는 순간, 더 깊은 골짜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장애물, 광야라는 공간의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지요. 이 시간과 공간은 여간해서 견디기도 힘들고 늘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하는 어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의 시간도 지났고 광야의 끝자락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장소까지 나아왔습니다.

**수월하게 들어가리라 생각했던 가나안 입구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과 길림길의 연속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 우리가 변치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믿지 않음'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1\_ 이어지는 장애물\_ 믿지 않음 (14-21절)**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마침 진영 안의 물도 고갈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와서 다투게 됩니다.(2~3절, 싸우다, 분투하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 화를 내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왜곡합니다. 형제들은 죽어 나가고, 물은 메말라 가는 난감한 상황 속에 은혜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보다, 백성들과 상한 마음으로 분투하고 말지요. 모세의 지도력에 장애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세는 물 문제가 해결된 이후, 요단을 건너기 위해 에돔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돔을 조용히 통과한다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에돔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에돔의 완강함 앞에서, 우회하여 홍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먼 길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고, 에돔길로 가는 결정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 마음이 성급하여져 장애물을 만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구하는 삶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눔] [하나님을 믿지 않음] - 나의 신앙 생활에서, 얼마나 실제 장애물로 와닿는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봅니다.

**2\_ 갈림길\_ 아론의 죽음, 이어지는 은혜 (22-29절)**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모세는 대제사장 옷을 벗겨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불순종이 가져온 죽음을 제사장 아론마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암, 아론,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여러 장애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생수를 반석에서 솟아나게 하였고,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입성케 하십니다.

[질문]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이나 대상은 무엇인가요?

[나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이어짐을 느끼고 있나요?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같이 나누어 봅니다.

이여지는 장애물	[믿지 않음]의 장애물을 넘어, [성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주옵소서.
기도 나타난 갈림길	사람이나 이 세상의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이여지는 은혜	삶 속에 장애물과 어려움들 나타날지라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